

제 ① 교시 국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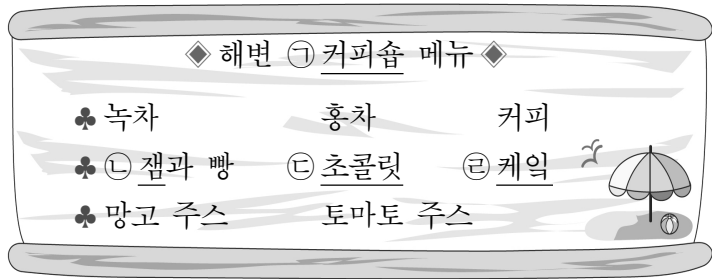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 중 다음 규정에 따르지 않은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① ㉠
- ② ㉡
- ③ ㉢
- ④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스물여덟 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초성은 모두 열일곱 자이다.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설음(舌音, 혓소리) ㄴ은 혀(끝)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순음(唇音, 입술소리) ㅁ은 입 모양을 본뜨고, 치음(齒音, 잇소리) ㅅ은 이 모양을 본뜨고,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은 ㄱ에 비하여 소리가 세게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ㄴ에서 ㄷ, ㄷ에서 ㄸ으로, ㅁ에서 ㅂ, ㅂ에서 ㅃ으로, ㅅ에서 ㅆ, ㅆ에서 ㅉ으로, ㅇ에서 ㆁ, ㆁ에서 ㆃ으로 소리의 세기를 바탕으로 획을 더한 뜻이 모두 같다. 그러나, 오직 ㅇ은 다르다. 반설음 ㄹ과 반치음 ㄷ 역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떠서 그 모양을 달리했지만, 획을 더한 의미는 없다.

-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ㄴ은 획을 더한 글자이다.
- ② ㄷ은 획을 더한 글자이다.
- ③ ㅁ은 입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④ ㅅ은 이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3. ㉣에 들어갈 초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ㅋ
- ② ㅌ
- ③ ㅍ
- ④ ㅂ

4. 다음 규정에 따른 발음으로 옳은 것은?

표준 발음법 제4장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잘 있어[이떠].
- ② 꽃을[꼬슬] 판다.
- ③ 밭에[바테] 간다.
- ④ 비너를 꽃아[꼬다].

5.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1: 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쓴이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2: (㉣)
그러나 저는 인신공격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① 토론 주제와 상관이 없는 주장입니다.
- ② 그런 점만 생각하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우리 생활과 현실적으로 무관한 주장입니다.
- ④ 반대 측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 나는 연극 ㉠ 동아리에 무대 장치를 담당하고 있어. 내 꿈은 ㉡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지만 무대 공포증 때문에 배우가 되기를 포기했지. 그래도 연극에 동참할 방법을 찾다가 무대 장치를 맡게 되었어. 내 손으로 만든 무대 위에서 부원들이 ㉢ 공연을 연기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친구들아! ㉣ 저번에 우리 동아리 정기 공연이 있을 거야. (㉣)

6. ㉠~㉣을 문맥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동아리에서
- ② ㉡: 배우로써
- ③ ㉢: 공연하는
- ④ ㉣: 이번에

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조건>

- 관객을 초대하는 의도를 드러낼 것
- 의문형 어미를 활용할 것

- ① 공연을 방해할 친구들! 제발 오지 마.
- ② 너희들의 도움이 절실해. 많이 관람하자.
- ③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고 싶어. 방법이 없을까?
- ④ 너희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할게. 꼭 와 줄 거지?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A]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8.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4구체 향가이다.
- ② 영탄적 표현이 나타난다.
- ③ 3·3·2조의 운율이 사용된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9. ㉠에 쓰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 ②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③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④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 눈이 내려

10.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죽은 누이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죽은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 ③ 이별한 누이를 잊고 세속적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
- ④ 누이와 이별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

1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② 명사로 끝맺으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의지를 표현하는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삽입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시구 중 **밤**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서시」는 광복 후 간행된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 억압적 상황 속에서 겪어야 했던 지식인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

- ①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김소월, 「산유화」
- ②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 이육사, 「절정」
- ③ 넓은 별 동쪽 끝으로 /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정지용, 「향수」
- ④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발이 한참같이 / 팽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13. ㉠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갖는 공통점은?

<보기>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 윤동주, 「참회록(懺悔錄)」 -

- 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 ②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 ③ 사명을 완수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 ④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아내와 함께 고향을 찾는다. 노인은 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들에게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나’는 노인에게 진 빚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외면한다. 그러던 중 ‘나’는 잠결에 노인과 아내의 대화를 듣게 된다.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잖나? 눈발이 그친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 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잖나?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중략)…

[A]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 이청준, 「눈길」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15. [A]의 상황을 ‘노인’이 일기로 썼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년 ○월 ○일
 오늘 ㉠아들을 보내고 돌아왔다. 산비둘기를 보아도 아들 생각, ㉡눈 쌓인 나무를 보아도 아들 생각이 났다. 돌아오는 산길에 눈은 녹아 ㉢아들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고, 굽이굽이 ㉣외진 산길을 혼자서 되돌아왔다.

- ① ㉠ ② ㉡ ③ ㉢ ④ ㉣

16. 윗글에서 「눈길」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게 된 계기
- ② 아내의 어린 시절 추억을 환기하는 대상
- ③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아내의 의지
- ④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간

17.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자식의 태도를 비판하였군.
- ② 사라져 가는 전통 예술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나’의 눈물은 자신의 감정이 동요하는 것과 관련 있겠군.
- ④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가 증가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중모리)

홍보가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마는, 섰든 자리여가 꿩어 얹져서,

“아이고, 형님! 형님, 이게 웬 말이오? 이 엄동 설한풍에 수다헌 자식덜을 다리고, 어느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오? 형님, 한 번 통촉을 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 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몽둥이를 추켜들고 추상같이 어르는구나. 홍보가 깜짝 놀래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 허니, 어느 영이라 어기오며, 어느 명령이라고 안 가겼소? 자식들을 챙겨 보오. 큰자식아, 어디 갔나? 두채놓아, 이리 오느라.”

이삿짐을 챙겨 지고, 놀보 앞에 가 꿩어 얹져,
 “형님, 갑니다. 부대 안녕히 계옵시오.”

(나) (아니리)

이렇게 홍보가 울며불며 나가, 그렇저렇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허는디, 아, 살 디가 없이니까 거 동네 앞에 물방아실도 자기 안방이요, 이리저리 돌아댁기다가 생현동 북덕촌을 당도 하였섯다. 여러 날, 홍보 자식들이 잘 묵다가 꿩어 노니, 모도 아사지경이 되야 가지고, 하루는 음식 노래로 이놈들이 죽 나와서 조르넸디, 한 녀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는 고파 못 살겠소. 나 육개장국에 사리쌀밥 많이 먹었으면.”

“어따, 이 자석아. 저 입맛 도저하께¹⁾ 아네. 육개장국에 사리쌀밥이 어디 있단 말이나, 이 자석아. 너 입맛 한번 도저하께 잘 아는다 와²⁾.” / 또 한 녀이 나왔으며,

[A]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³⁾에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자석아. 아이, 보리밥도 없는디, 용미봉탕에 잣죽이 또 어디 있단 말이나? 느그들 난시⁴⁾ 못 살겠다, 못 살겠어.”

- 강도근 창, 「홍부가」 -

1) 도저(到底)하께: 완벽한 정도에 가깝게. 매우 훌륭하게.

2) 아는다 와: 아는구나 응. ‘와’는 감탄의 의미를 가진 말로, 호남 지역의 방언임.

3) 용미봉탕(龍味鳳湯): 맛이 매우 좋은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난시: ‘때문에’의 사투리.

18. [A]에 나타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속담을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양반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어구를 반복하여 가난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9. (가)와 (나)를 판소리로 공연한다고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제시된 장단에 맞게 창을 한다.
- ② (가): 계절감을 살려 매미 소리를 넣는다.
- ③ (나): 지역 방언으로 향토색을 드러낸다.
- ④ (나):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한다.

20. <보기>의 ‘아우’가 형님에게 충고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형제가 금덩이 두 개를 주워 나눠 가졌는데 갑자기 아우가 금덩이를 강에 던졌다. 형이 이유를 묻자, “형의 금덩이까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형이 미워질까 봐 그랬어요.”라고 했다. 이에 깨달은 바가 있어 형도 금덩이를 강에 던졌다.
 - 형제투금설화(兄弟投金說話) -

- ①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
- ②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 ③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
- ④ 친구 사이에 믿음의 있어야 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없는 존재로 여기는 철학적 관념이 우세했다.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동물 복지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17세기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을 마치 시계와 같이 어떤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마취나 진통제 처치도 하지 않고 생체 해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한 경향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동물을 마치 기계인 양 취급하는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이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을 느끼며 사는지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나 고통을 나타내는 소리나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기쁨과 고통과 동일한 것인지, 혹은 꾸며서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간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되지만,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최소한 공유되고 있는 생각이다.

...(중략)...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고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도적인 행위이다. 이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물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이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며, 이는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 김진석,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

21. 윗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 ① 주장의 논리성을 따져야 한다.
- ②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 ③ 전제나 가정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
- ④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22. **공장식 농장**의 출현을 가져온 생각은?

- ① 동물은 이성적 영혼을 지니고 있다.
- ②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감각을 가졌다.
- ③ 동물은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 ④ 동물은 인간과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23.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너는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
- ② 그는 올바른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 ③ 그는 마취가 덜 깬지 의식이 흐릿했다.
- ④ 최근에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높아졌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형필이 오세창을 만났을 때 전형필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다. 오세창과는 무려 40년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둘은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 보며 자란 오세창의 막내아들 오일룡 씨는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루는 밤중에 자다가 눈을 떠 보니,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청년과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저는 척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 우리나라 고서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전형필은 오세창의 집을 드나들며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공부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키워 나갔다. 오세창은 전형필이 작품을 가져올 때마다 그 가치를 꼼꼼히 평가하고 정리한 글을 남겼다.

전형필은 오세창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일제 강점하의 조선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만남을 암울했던 시기에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복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형필이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자각하던 그 시기, 조선의 현실은 더없이 절망적이었다. 일제의 가혹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역사, 문화, 제도 등 모든 것이 사라져 가고 있었으며, 전형필이 목격한 우리 문화유산의 처지 또한 암담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철저히 파괴되고, 민족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던 일제 강점하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전형필은 **일생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

그의 문화유산 수집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 투쟁이었다. 문화유산을 통해 미술사를 연구하고, 미술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 ○○방송 한국사전 제작부, 「간송 전형필」 -

24. 윗글에서 사용한 글쓰기 전략은?

- ① 관련 인물의 증언을 인용한다.
- ② 허구적인 시·공간을 설정한다.
- ③ 여정에 따라서 건문을 서술한다.
- ④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2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일생을 건 싸움**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우리 문화유산 수집
- ② 외국의 문화재 보호
- ③ 문화유산을 통한 미술사 연구
- ④ 후손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 전달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